예배교회

2026년 11월 1일 · 일요일 · 제26-44호

주일오전 11시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1-10



울산시 동구 등대3길 40 301호 · kim@ivx.kr · wymv.kr

ORDER OF WORSHIP

# 예배 순서



>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 | | | |
|---|---|---|---|
| 01 | **찬양** | | 이정호 집사 |
| 02 | **기도** | | 감사와 회개 |
| 03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
| 04 | **성경봉독** | 사도행전 3:1-10 | 다함께 |
| 05 | **말씀**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 김문종 목사 |
| 06 | **찬양** | 나의 등뒤에서 | 다함께 |
| 07 | **기도** | | 순종과 결단 |
| 08 | **광고** | | 인도자 |
| 09 | **축복송** | 너희 가는 길에 | 다함께 |
| 10 | **축도** | | 김문종 목사 |
| 11 | **식사교제** | | 다함께 |

### 알립니다

예배교회 홈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보시고 수정 사항이나 추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ORD & REFLECTION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래 아프다 보면 낫기를 바라는 마음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실망하는게 습관이 되면 누가 좋은 말을 해줘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무사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사람도 그날 먹고살 만큼의 도움을 원했습니다.
기적을 바란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미 포기하고 다시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기억에서 지워졌는지 기대를 포기했는지 기도제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나하고 무슨상관이 있을까? 싶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주님 앞에 꺼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 지친 마음 그대로 보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그 이름부터 불러 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혼자서는 일어설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NEWS & ANNOUNCEMENTS

# 교회 소식



0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02 다음세대 교육을 위한 그로우젠 설립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예배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갈 QR 코드를 실어 두었습니다. QR 코드를 카메라로 촬영해서 들어가 보세요

04 예배교회 전용 바야톡을 설치할 수 있는 QR 코드를 실어 두었습니다. 촬영하시면 바야톡을 설지할 수 있습니다.

## 함께 기도해요

한영혼 품기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교회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바야톡 설치**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세요
talk.wymv.kr/invite

홈페이지 바로가기